

미국 주요 관광거점과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 전략

'26. 07. 30.(목) / 뉴욕지사

□ 분석 배경 및 목적

- 미국 방문 해외관광객은 뉴욕,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등 주요 관광거점에 지속적으로 집중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한편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해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 인프라 확충, 지역 협력사업 및 대형 국가 이벤트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미국 상무부 산하 National Travel and Tourism Office(NTTO)는 미국 방문 외래 관광객이 2025년 6,829만 명에서 2026년 7,047만 명 (약 3.2% 증가)으로 증가하고, 2030년에는 8,518만 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International Arrivals to the United States (Thousands)

Origin Country	Actual	Forecast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Total International	68,288	70,474	74,141	78,652	82,335	85,178
Total Overseas	34,289	34,825	36,724	38,909	40,910	41,994
India	2,061	1,977	2,083	2,197	2,310	2,414
Italy	1,183	1,187	1,219	1,270	1,332	1,415
Mexico	17,980	19,026	19,865	20,695	21,413	22,057
Brazil	1,917	2,027	2,109	2,208	2,307	2,408
France	1,590	1,573	1,654	1,737	1,820	1,904
Germany	1,770	1,807	1,883	1,965	2,056	2,144
United Kingdom	4,058	4,202	4,387	4,572	4,758	4,943
Canada	16,019	16,622	17,552	19,048	20,013	21,126
Australia	959	973	1,047	1,118	1,186	1,254
South Korea	1,647	1,673	1,810	1,946	2,082	2,215
China	1,562	1,617	1,778	1,935	2,091	2,245
Japan	1,967	2,055	2,235	2,427	2,622	2,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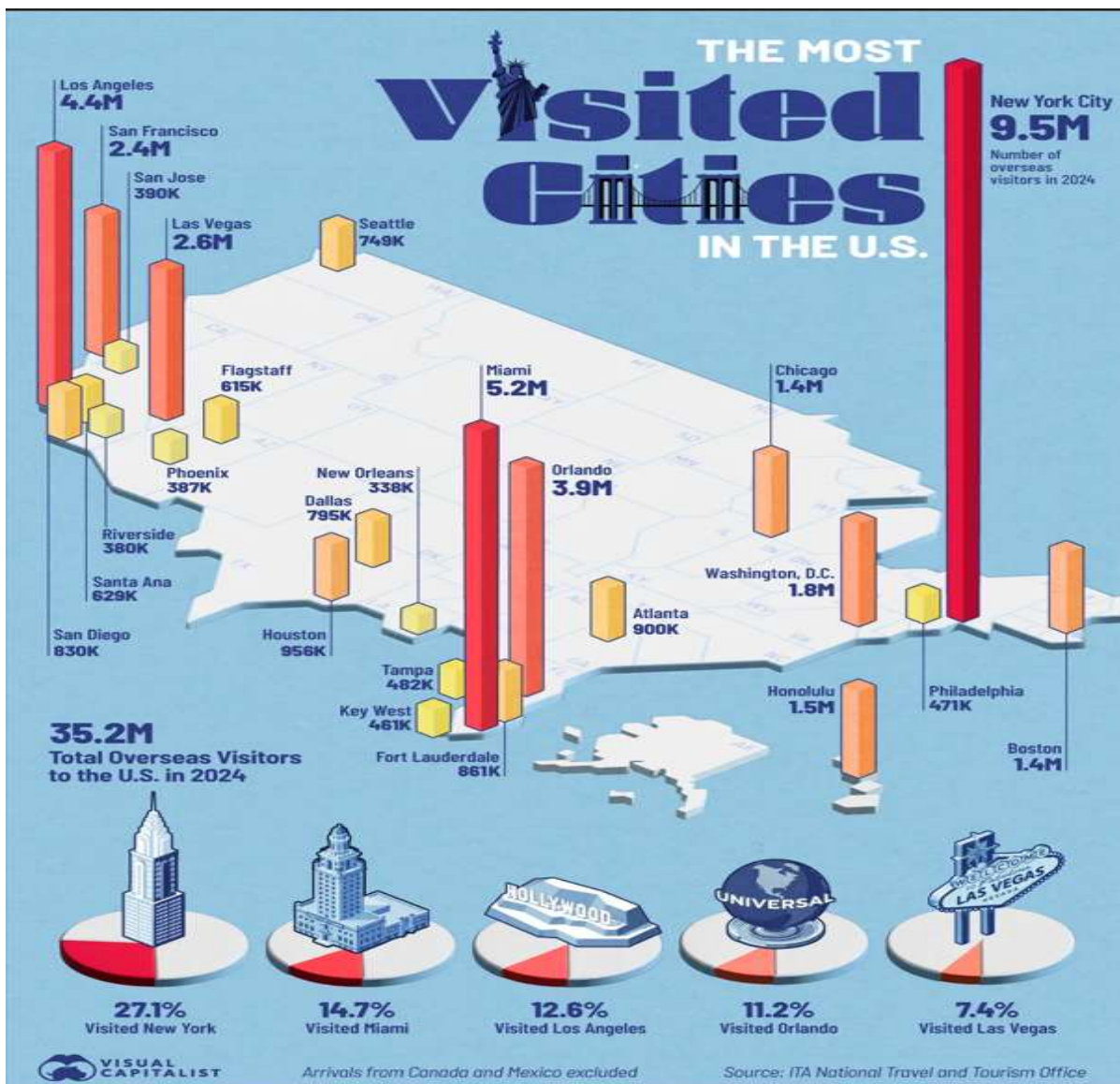
* (출처) NTTO(2025)

○ 주요 관광도시 방문 현황

- 도시별 외국인 방문자 수는 뉴욕시티(950만 명), 마이애미(520만 명), LA(440만 명), 올랜도(390만 명), 라스베이거스(260만 명) 순임.

도시	주요 관광 경쟁력
뉴욕(New York City)	문화·예술, 브로드웨이, 쇼핑, 금융·비즈니스
마이애미(Miami)	크루즈 관광, 해양레저, 국제 휴양관광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엔터테인먼트, 영화산업, 문화관광
올랜도(Orlando)	테마파크 관광
라스베이거스(Las Vegas)	MICE, 카지노, 공연 및 스포츠 이벤트

- 미국 해외관광객 방문 상위 도시 (2024)



* (출처) Visual Capitalist(2024)

□ 주요 주(州)별 관광경쟁력 강화 동향

○ 뉴욕 관광산업

- 뉴욕은 2025년 약 6,500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며 기존 전망을 상회하였음. 관광산업은 약 847억 달러의 경제효과, 556억 달러의 관광객 지출, 39만7천 개의 일자리, 75억 달러의 세수를 창출하였으며, 2026년에도 지속적인 성장세가 전망됨
- 관광객 증가뿐 아니라 문화·예술, MICE, 쇼핑, 비즈니스 관광을 중심으로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확대하며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중임

○ 캘리포니아 관광산업

- 캘리포니아는 2025년 관광객 소비가 약 1,58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관광산업은 약 120만 개의 일자리와 136억 달러의 주·지방세를 창출하였음
- 또한 엔터테인먼트, 자연관광, 미식관광, 와인관광 등 지역 특화 관광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육성하며 미국 서부 관광시장의 경쟁력을 확대하는 중임

○ 플로리다 관광산업

- 플로리다는 2024년 1억4,300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관광산업은 약 2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관광객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또한 VISIT FLORIDA는 자연관광, 야외레저, 생태관광 등 지역 특화 관광콘텐츠를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Rural Areas of Opportunity (RAO)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관광마케팅과 협력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역 관광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네바다 관광산업

- 네바다는 관광객 소비가 약 585억 달러, 관광산업은 약 45만9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하고 있음. 또한 농촌지역 관광객 소비는 2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지역경제에도 지속적으로 크게 기여 중

- 특히 Travel Nevada는 Destination Stewardship 전략을 도입하여 지역사회와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Destination Development Design(3D) Project를 통해 지역 관광 브랜드 개발, 관광 인프라 개선 및 중장기 관광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지역 관광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 지역관광 활성화 사례

○ 신시내티 (Cincinnati) — 도시 재생과 관광의 시너지

- 신시내티는 2000년대 초 도심 쇠퇴와 인구 유출 위기를 겪었으나, 기업·지자체·관광조직이 협력해 오버더라인(Over-the-Rhine) 등 도심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음
- 3CDC(Cincinnati City Center Development Corporation)라는 비영리 개발법인을 설립해 13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였고 그 결과, 방문객 수가 2013년 2,410만 명에서 2017년 2,660만 명으로 증가했고, 관광 일자리도 7만 4,000개에서 8만 300개로 증가하였음
- 특히, 관광 세수만 연간 12억 달러를 기록해, 지역 주민 1가구당 약 653달러의 세 부담 경감 효과 발생

○ 유타주 — ‘Rourism’ (Rural + Tourism) 캠페인

- 유타 주는 주 관광국이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Utah Rourism’ 이니셔티브를 추진
- 주 차원에서 농촌 지역의 관광 인프라와 마케팅을 지원하며, 방문객 유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고용을 늘리는 전략을 펼쳤고 이 프로그램은 관광이 농촌 지역의 대체 소득원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좋은 사례임

○ 와이오밍 주 — #FlyYourWY 주민 참여 캠페인

- 와이오밍 주 관광국은 주 전체 23개 카운티에 ‘That’s WY’ 플래그를 배포하고, 주민들이 지역 관광명소를 사진과 함께 SNS에 공유하도록 유도하였음
- 2018년 3월 7일 ‘3.07 데이’ (와이오밍의 유일한 지역번호)를 지정해 주 pride를 고취시켰고 출시 이후 캠페인 웹사이트 페이지뷰 9,000회 이상,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게시물 1,000개 이상을 기록하며 주민 참여 관광 홍보 모델을 정립

○ 애리조나 주 — [Un]Real Arizona 디지털 마케팅

- 애리조나 주 관광국은 2018년 ‘[Un]Real Arizona’ 캠페인을 통해 4대 타깃 도시를 집중 공략했고 디지털 광고 1달러 당 호텔 매출 33.22달러를 달성하는 높은 ROI를 기록
- 2016년 기준 4,300만 명의 방문객이 212억 달러를 지출하며, 주 세수 31억 달러와 18만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함

○ America250 프로젝트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

- 미국은 2026년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America250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 단위 문화·역사·관광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음.
- 일부 지역에서는 숙박수요 증가가 전망되는 등 대형 국가 이벤트를 활용하여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객 유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America 250 Events Impacting July 4th Holiday Week Pacing in Some Markets for 2026

Direct data as of October 29, all years



* (출처) America250 Foundation

- America250 프로젝트 관련 지역관광 활성화 주요 사례

주	프로그램	주요내용
버지니아	LA250 기념 트레일(Heritage Trails)	건국 과정에 기여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원주민, 여성들의 역사적 장소를 잇는 새로운 자동차 여행 코스(Driving Trails) 및 모바일 앱 가이드를 개발
노스캐롤라이나	지역 특산품 및 양조장 협업	지역 로컬 양조장 및 식당들과 협업하여 '250주년 기념 한정판 수제 맥주' 및 로컬 푸드 메뉴를 출시해 방문객들의 현지 소비를 촉진
아이오와 및 중서부 지역	주 단위 패밀리 페스티벌	아이오와주 등에서는 America250을 '미국 개척사와 지역 공동체의 발전'이라는 테마로 확장해 주립 박람회(State Fair)와 연계하여 중서부의 농업 역사와 로컬 문화를 알리는 초대형 로컬 축제를 기획

<지역관광 활성화 성공 요인>

요인	주요내용
공공-민간 협력	지자체, DMO(관광조직), 지역 기업이 공동 투자하고 거버넌스를 구축
주민 참여와 자부심 고취	주민이 지역 홍보에 적극 참여하면 신뢰도 높은 스토리텔링 가능
소규모 사업체 지원	맥주공장, 농장 체험, 로컬 식당 등 소규모 사업이 관광의 핵심 자산
데이터 기반 마케팅	타깃 도시·연령대·채널별 ROI를 측정해 예산 효율화
농촌 지역 특화 프로그램	농촌 관광(Rourism)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저비용·고효율 가능

□ 시사점 및 제언

- (환경조성) 위 신시내티 사례와 같이 관광을 최우선으로 삼지 않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단순 인프라 개선을 넘어 방문객이 체류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
- (소규모사업 지원) 와인, 맥주, 농산물 등 지역에서 미국 내 다양한 농촌 소규모 사업체 지원이 농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것과 같이 농촌관광은 농가 소기업 + 지역 사회개발이 연계되어 발전할 수 있게 민간 주도 + 연방정부 보조금·대출로 지원 방안 마련하는 방식임
- (디지털 마케팅) 주민이 직접 지역 관광 명소를 공유하도록 하여 신뢰도 높은 디지털 캠페인을 추진하고 애리조나 주 [Un]Real Arizona 사례를 답습하여 타깃 도시·연령대·채널별 성과 측정을 통해 예산 효율화를 실현해야함
- (핵심 성공 요인) 미국 지역관광 활성화 사례들은 관광이 목적이 아니라 지역 활성화의 결과물이라는 철학과 공공-민간-주민 협력 거버넌스, 주민 참여와 자부심 고취, 소규모 사업체 지원, 주정부 차원의 농촌 관광(Rourism) 이니셔티브, 데이터 기반 타깃 마케팅과 ROI 측정을 핵심 성공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음
- (지역 관광정책 발전 방향) 미국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음

정책영역	주요내용
거버넌스	DMO를 공공-민간-주민 협력 거버넌스로 전환, 상향식 의사결정 모델 도입
도시재생	문화·축제·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한 관광 유입 전략 수립
농촌관광	농촌 소기업·농가 지원 체계 구축, 농촌 지역 관광 개발 자원 마련
주민 참여	주민이 직접 관광 콘텐츠를 생산·공유하는 SNS 캠페인 지원
마케팅	데이터 기반 타깃 마케팅과 ROI 측정 체계 구축
재정지원	연방·주정부 보조금·대출 보증 등 농촌 관광 지원 제도 도입

- (한국 벤치마킹 요소) 한국 또한 이 사례들을 참고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DMO를 지역관광 거버넌스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도시재생과 문화·축제·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강하게 연계* 하며, 농촌 소기업·농가 지원 체계와 농촌 지역 관광 개발 자원 마련 방안을 도입하고, 주민이 직접 관광 콘텐츠를 생산·공유하는 SNS 캠페인을 더욱 확대하며, 데이터 기반 마케팅과 ROI 측정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발전시켜 나가야함

* 문화적 도시재생은 물리적 환경 개선뿐 아니라 시민 참여, 도시 정체성 강화, 관광 수입 창출까지 포괄해야함. 따라서 한국 도시재생사업은 이벤트·축제, 체험 프로그램, 문화 콘텐츠와 연계해 관광객 유입을 유도(대표 예시: 부산국제영화제)

< 출처 >

<https://www.trade.gov/i-94-arrivals-program>

<https://www.visualcapitalist.com/ranked-u-s-cities-overseas-tourists/>

<https://www.visualcapitalist.com/mapped-most-visited-states-by-tourists/>

<https://www.iloveny.com/thebeat/post/new-york-city-tourism-conventions-2025-visitation-surpasses-forecast/>

<https://travelnevada.biz/research-strategy/annual-report/>

<https://www.visitflorida.org/about-us/what-we-do/annual-reports/>

<https://industry.visitcalifornia.com/research/reports/economic-impact>

<https://www.hotelnewsresource.com/article138929.html>

<https://www.trade.gov/national-travel-and-tourism-office>

<https://www.thebrandusa.com/media/newsroom/whats-new-usa-2026-spring-update>

https://www.ustravel.org/system/files/media_root/document/MadeInAmerica_DIGITAL_FINAL_0.pdf

붙임 미국 주요 경제지표 현황 및 관광 동향 1부. 끝.

붙임

미국 주요 경제지표 현황 및 관광 동향

※ 각 지표의 수치는 수시 업데이트 되어, 현재 공표된 수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경제지표

- (생산자 물가지수)

<2025-2026년 월별 미국 생산자물가지수(PPI)>

월	25.7월	25.8월	25.9월	25.11월	25.12월	26.1월	26.2월	26.3월	26.4월	26.5월	26.6월
Index	149.36	149.21	149.78	150.71	151.47	152.19	153.23	148.03	154.01	154.82	153.23
전월대비 증감률	0.7%	△0.1%	0.4%	0.5%	0.5%	0.5%	0.7%	△2.7%	1.4%	0.53%	△1%

* Final demand price indexes 기준

- (소비자 물가지수)

<2025-2026년 월별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월	25.7월	25.8월	25.9월	25.11월	25.12월	26.1월	26.2월	26.3월	26.4월	26.5월	26.6월
Index	323.05	323.98	324.80	324.12	324.05	325.25	326.79	326.79	327.8	328.6	328.4
전월대비 증감률	0.2%	0.4%	0.3%	△0.21%	△0.02%	0.2%	0.3%	0%	0.6%	0.24%	△0.06%

* BLS Consumer Price Index 기준

- (소비자 심리지수) '26년 6월 기준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는 49.5
으로 하락국면임.

<2025-2026년 월별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CSI)>

월	25.7월	25.8월	25.9월	25.10월	25.11월	25.12월	26.1월	26.2월	26.3월	26.4월	26.5월	26.6월
Index	61.8	58.2	55.1	53.6	51.0	52.9	56.4	56.6	56.6	57.1	52.0	49.5

* 출처: 미시건대학교(UMCSSENT) 및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FRED)

- (고용동향) 실업률 및 비농업 고용자 수 변화

<2025-2026년 월별 미국 실업률 및 비농업 신규 고용>

월	25.7월	25.8월	25.9월	25.11월	25.12월	26.1월	26.2월	26.3월	26.4월	26.5월	26.6월
실업률	4.2%	4.3%	4.4%	4.6%	4.4%	4.3%	4.4%	4.3%	4.0%	4.3%	4.2%
비농업 신규 고용(명)	+79,000	+22,000	+119,000	+64,000	+50,000	+130,000	-92,000	+178,000	+185,000	+139,000	+57,000

* 출처: 미국 노동통계국(BLS)

○ 업계동향

- (아웃바운드 수요) '26.3월 기준, 해외여행을 다녀온 미국인은 약 24백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하며 '25년 3.1% 감소에서 증가세로 전환

< 2024-2026 미국 아웃바운드 통계 [출처 : NTTO, U.S Outbound to World Regions] > 미국

구분	2024	2025	2026
연간	106,376,575	109,261,808	-
1~3월	23,366,454	22,633,117	24,549,491
전년대비	-	△3.1%	8.5%

□ 주요 경쟁국 미국인 입국통계

국가명	2026년 6월	전년 동기(월)	증감율	비고
대한민국	177,744	166,242	6.9%	
일본	354,500	345,150	2.5%	
베트남	84,050	73,715	14%	
태국	71,083	81,717	-13%	
필리핀	91,182	97,811	-6.8%	'26년 4월 기준
홍콩	81,746	71,839	13.8%	'26년 5월 기준
대만	60,252	53,495	12.6%	'26년 5월 기준
싱가포르	60,189	54,197	11%	'26년 4월 기준
말레이시아	23,073	23,665	-2.5%	'26년 5월 기준
인도네시아	35,597	35,	1.7%	'26년 5월 기준

* 2026년 중국 인바운드 관광객 데이터 확인 불가

** 출처: 각 국가별 관광청 홈페이지

< 데이터 출처 >

<https://www.eia.gov/dnav/pet/hist/rbrted.htm>

<https://www.tsa.gov/travel/passenger-volumes>

<https://www.bls.gov/cpi/factsheets/airline-fares.htm>